

2020 국별 진출전략

체코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전환	4
나. 인력난 및 임금 상승지속,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5
다. 내부 경제상황 안정, 외부 불확실성 증가	7
라.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경제 확대	8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가. 정치 환경	9
나. 경제 환경	10
다. 산업 환경	11
라. 정책·규제 환경	12
2. 시장 분석	14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4
나. 교역	15
다. 투자진출	19
라. 프로젝트	20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3
가. 교역	23
나. 투자	25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7
III. 진출전략	29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9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0
3. 한-체코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5
4. 진출 시 유의사항	38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9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0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1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2
부 록	
對체코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3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다소 하락

- 경제성장은 내수에 힘입어 지속 예상 반면, 외부 경제의 악화요인 및 국내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
 - 주요 경제 전망 하향 조정, 체코 재무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을 2018년 3%, 2019년 2.5% 보다 낮은 2.3% 전망(IMF는 2.7% 전망)
- 노동시장 긴축에 따른 임금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 주요 교역국인 서유럽의 경기둔화 조짐, 브렉시트, 국제무역관계 긴장 고조는 향후 수출 및 투자 활동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10.5	10.5	10.6	10.6	10.6	10.6	10.6	10.6
명목GDP	십억 달러	209.4	207.8	186.8	195.1	215.9	242.1	246.2	259.7
1인당 명목GDP	달러	19,913	19,769	17,729	18,485	20,410	22,850	23,210	24,460
실질성장률	%	-0.5	2.7	5.3	2.5	4.4	3.0	2.5	2.3
실업률	%	7.0	6.1	5.1	4.0	2.9	2.2	2.2	2.3
소비자물가상승률	%	1.4	0.4	0.3	0.7	2.5	2.1	2.5	2.2
재정수지(GDP대비)	%	-1.2	-2.1	-0.6	0.7	1.6	0.9	0.3	0
총수출	백만 달러	162,302	175,017	157,880	162,716	182,236	202,751	116,360*	-
(對韓 수출)	"	579	604	507	440	456	493	277*	-
총수입	"	144,320	154,233	141,366	143,041	163,374	185,102	102,892*	-
(對韓 수입)	"	3,004	3,113	3,365	3,508	4,246	4,283	2,258*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7,983	20,784	16,514	19,675	18,862	17,649	13,469*	-
경상수지	"	-1,167.3	574.1	259.5	3,200.6	3153.6	842.6	1944.4*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9.56	20.75	24.60	24.43	23.38	21.74	22.80	22.6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0.6	16.20	24.87	21.83	75.58	52.76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6.76	54.95	4.65	98.18	95.19	94.77	-	-

주1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주2 : 2019년 수출입통계는 7월까지 누계 기준, 2019년 경상수지는 1/4분기 기준

자료 : IMF, 체코통계청, 체코재무부, 체코중앙은행(2019년 9월 기준)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전환
- 인력난 및 임금상승 지속,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 내부적 경제상황 안정, 외부 불확실성은 증가
-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경제 확대

가.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전환

고부가가치 및 첨단기술 산업 육성 추진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국가 핵심 비전 발표
 - 바비쉬 총리 체코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지속적 혁신지원 필요성 강조
 - 체코 정부 2019년 2월 R&D, 첨단기술, 스타트업, 디지털화, 고부가가치 투자 등 9가지의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 체코 혁신전략 2019~2030년을 승인, 2030년까지 유럽 혁신 선도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RDI(연구개발 및 혁신)분야 예산 매년 증가
 - 체코는 현재 GDP 대비 1.8%인 R&D 비중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는 3.0%까지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R&D 분야 육성
 - 이에 따라 RDI(연구개발 및 혁신)분야 예산을 매년 늘려 2020년에는 2015년 대비 100억 코루나 증가한 370억 코루나로 확대할 예정임
- 한국과 R&D 분야 협력확대 기대
 - 체코에서 GDP 대비 R&D 투자비중 세계 1위인 한국의 R&D 우수성 높게 평가, 기초과학 뛰어난 체코와 상용화 기술 우수한 한국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 체코의 R&D 국제협력 프로그램 델타2에 한국 파트너국가로 선정돼 한-체 공동 연구개발 지속 예정, 우리기업의 연구기관협력을 통한 체코시장 진출기회 확대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집중

- 고부가가치 조건 강화, R&D 센터 인센티브 확대
 - 단순 생산 제조업 포화상태로 2019년 9월 6일 고부가 가치 투자에 초점을 맞춘 투자인센티브 개정
 -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투자지역과 정부에 창출되는 이점을 기반으로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최종 결정, 기존보다 심사 강화

- (제조업) 기존 20개 신규 일자리 창출 조건이 취소됐으며, 고부가가치 조건(낙후지역 제외)이 추가됨. 반면, 인센티브는 축소돼 기존 고용창출 및 직원훈련 보조금은 취소되고, 최대 10년 법인세 면제만 제공

고부가가치 조건 : 최소 80% 직원에게 투자지역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 또는 ①~③ 중 택일(① 대학학위 직원의 비율 10%, 적격비용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R&D 기관과의 협력 ② R&D 직원 비율 2% ③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류 10%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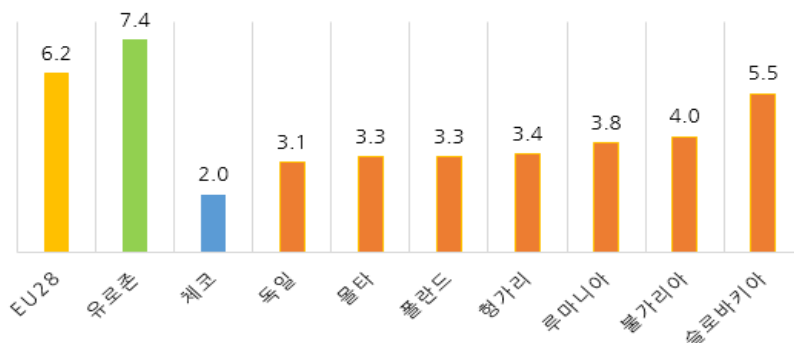
- (R&D 센터, 비즈니스 지원 센터) 인센티브 중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원훈련 보조금 기존 일부 지역 전 지역으로 확대
 - * 고용창출 보조금 : 신규고용 1인당 20만 코루나(약 8,000유로), 직원훈련 보조금 : 소요비용의 25%
- 체코 투자전략 검토 필요
 - 체코에 제조업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개정안의 꼼꼼한 검토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조건이 필요 없는 낙후지역(Afflicted area)이 진출 시 유리
 - R&D 센터 및 SW/IT개발센터 투자의 경우 혜택증가로 체코에 신규 및 확장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인력난 및 임금 상승지속,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구인난, 인건비 상승 지속

- 실업률 유럽 최저 수준 유지, 구인난 지속
 - 2019년 8월 EU 28개국 실업률은 6.2%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체코 실업률은 2.0%로 여전히 EU 국가 중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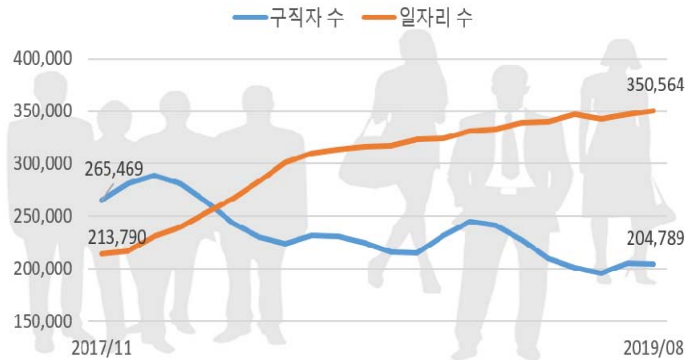
2019년 8월 EU 실업률 현황



자료 : Eurostat(2019년 10월 기준)

- 2019년 8월 체코노동부에 등록된 일자리 수는 약 35만 개이나 구직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약 15만여 명의 직원 부족
- 또한, 2019년 전체 일자리 중 공식 일자리의 비중이 6.4%로 EU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2위 벨기에 3.6%, 3위 독일 3.3%), 28개국 평균인 2.3%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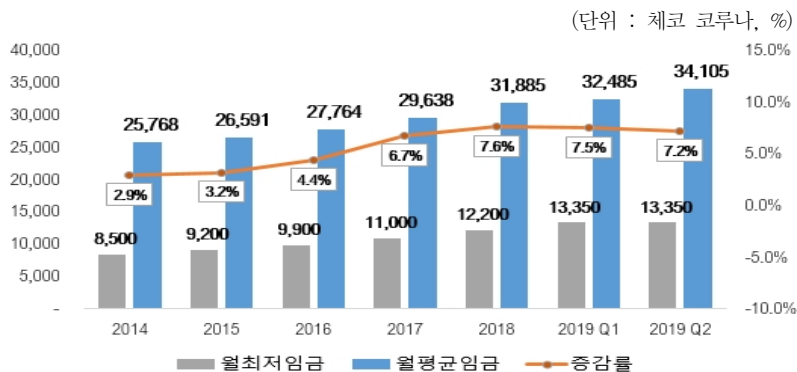
노동부에 등록된 구직자와 일자리 수 현황



자료 : 체코노동부(2019년 10월 기준)

- o 임금상승 지속 중이나, 향후 상승속도는 둔화 예상
 - 노동시장 과열로 지난 2년간 체코 임금상승률은 평균 6~7%의 높은 수준을 기록, 2019년에는 7%대 수준을 유지 중임
 - 그러나 최근 기업부담 가중 및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임금상승 속도 둔화 조짐. 체코 경제지 Ekono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업이 향후 임금인상 속도를 늦출 계획이며, 체코 상공회의소는 2020년 임금상승 수준을 6%로 전망함

체코 월평균임금 동향



자료 : 체코통계청, 체코노동부(2019년 10월 기준)

정부 외국인 고용확대, 기업 생산 효율성 향상 투자로 인력부족 대응

- 체코정부는 인력부족으로 2019년 9월부터 특정 국적의 외국인 고용비자 절차를 간소화 및 지원 해주는 프로그램의 외국인 노동자 연간 할당량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전문자격별로 통합·간소화함
- 기업 인력부족 및 노무비 상승 대응해 설비의 자동화, 로봇화 등의 투자로 생산성 향상 및 혁신 기술 개발로 기술경쟁력 확보 모색 필요
 - 실제로 체코산업연맹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생산성 투자확대를 계획하는 회사비율이 40%로 나타남

다. 내부 경제상황 안정, 외부 불확실성 증가

내부 경제상황 양호로 안정적 성장 유지 예상

- 체코 경제상태 양호
 - 유럽 최저 실업률, 지속적인 임금상승, 유럽 평균 경제성장률 상회, 낮은 국가 부채율 등 체코 경제상황 안정적인 상태 유지
 - 가계소비, 기업·정부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내수에 힘입어 경제성장 지속 예상
- 기업 주문량 양호, 내부 주요 하락 조짐 없어
 - 체코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약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문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
 - 체코산업연맹(SP)과 체코중앙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 산업생산 및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기업의 주문 및 신규채용은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주요 하락 조짐은 없다고 밝힘

주요 유럽 무역국 경제악화 및 국제무역 긴장고조로 불확실성 증가

- 체코의 대(對)독일이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독일 경제 전망 악화로 체코 향후 경제에도 불확실성 증가
 - 독일 GDP는 올해 2분기에 0.1% 감소했으며, 독일 경제연구소 Ifo에 따르면, 기업 정서를 반영한 경기침체 조짐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체코 수출 및 투자활동의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럽 수출의존도가 높은 체코경제 특성을 고려해 향후 경제 하방조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

라.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경제 확대

지속 가능 및 공유경제 확대

-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증가
 - 재활용 가능한 병이나 캔에 담아갈 수 있는 포장 없는 매장이 확대되고, 체코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속 가능 유통 확산
 - Eurobarometer의 2017년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코 기업의 64%가 폐기물 최소화 및 효율적 자원사용을 시행하고, 체코기업의 3%가 매출의 11% 이상을 효율적인 자원사용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유경제 성장
 - 딜로이트에 따르면, 2017년 체코 공유경제는 약 20억 코루나(약 8,520만 달러) 규모로, 현재는 주로 차량과 아파트 공유가 주를 이루나 향후에는 제품교환, P2P 펀딩, 서비스 및 용역 공유 분야로 확대가 예상됨
 - 대도시의 대안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가 체코에서 활발히 운영 중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움직임

-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 확대
 - 체코정부는 2030년까지 25만 대의 전기자동차 사용 및 대체연료 차량 비중 10%를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 확대 정책 추진
 - 스코다 자동차가 2019년 전기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고,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 생산 시작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체코에 약 20만 대의 전기자전거가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문제, 복잡한 도시 내 주차문제, 출퇴근 시 교통체증 등의 요인으로 친환경 소형 이동수단으로서 장점을 가진 전기자전거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관련 부품 수요 증가 예상
 - 2020년에 체코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설비 및 부품 수요 증가 및 현지 업체와 R&D, 기술협력 확대 가능성 높아짐
 - 체코는 유럽 6위의 전기자전거 생산국이며, 기존 완성차 기업도 전기자전거 제조에 뛰어들고 있어 배터리 등 전기자전거 부품 수요 증가 예상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연립정부 정책 일치성 약화, 공공임금 및 연금인상 추진
- (경제) 안정적인 경제상황 유지, 경제성장률은 둔화
- (산업) 제조업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
- (정책) 현 신산업 및 Industry 4.0 육성정책 추진

가. 정치 환경

ANO당과 사회민주당 연립정부 운영, 정책 일치성 약화 예상

- 2018년 7월부터 중도주의 ANO당이 주도하여 ANO당과 좌파성향의 사회민주당(ČSSD)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집권
 - 전반적인 정치 방향은 재정적 책임주의, 투자 친화적, 그리고 다소 EU 회의적인 성향이 있으나, 친서구적인 중도주의 유지
 - 정부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연금제도 개혁, 디지털 프로젝트, EU와 관계에서 체코의 이해증진, 전략적 투자 프로그램, 국가개혁 및 보안강화, 효율적인 세금징수 및 특정 세금 인하
- 총리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정치적 대립 확산, 연립정부 결속력 약화 예상
 - 바비쉬 총리의 EU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바비쉬 총리의 지속적인 의혹 부인 및 조사방해로 공산정권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총리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총리 불신임안이 발의(부결됨)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음
 -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바비쉬는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야당과의 대립과 EU 보조금 횡령으로 유럽연합과의 이해상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식적인 정책에 반하는 친러시아, 친중국 외교정책을 고수하는 제만 대통령과 공산당의 개입이 연립정부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공공임금 및 연금인상 추진

- 공공부문의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인상 지속 추진

- 공공임금 인상 추진 결과 2015년 이래 공공부문 평균임금이 민간기업의 평균임금을 초과해 2018년에는 초과 금액이 2,000코루나(약 85달러)를 기록
- 2020년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월 임금을 1,500코루나를 인상하고, 교사의 경우는 10% 인상에 동의함. 또한, 2020년 연금도 월평균 900코루나 인상이 확정됐음
- 민간부문 임금인상 및 가계소비 증가에 영향
 -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에 압력으로 작용해 많은 기업의 임금협상에서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이 강력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임금 및 연금인상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가계소비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나. 경제 환경

안정적인 경제상황 유지, 경제성장률은 둔화

- 건설 및 장비투자의 두 자릿수 성장에 따른 고정자본투자 증가, EU 펀드 및 투자기금 프로젝트에 따른 정부 투자활동 가속화로 2018년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2018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
 - 내수가 GDP 성장을 견인해 2019년 1분기와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각각 2.7%, 2.8%를 기록함. 높은 소비자 신뢰지수와 함께 가처분 소득 증가로 최종소비지출 1, 2분기 모두 2.6% 증가함
 - 2019~2020년 경제성장은 내수지속과 외부 위험요소 공존으로 다소 둔화 예상
 - * 성장률추이(재무부기준) : 2.5%(2016) → 4.4%(2017) → 3.0%(2018) → 2.5%(2019. 전망) → 2.3%(2020. 전망)

물가 상승률 2% 유지, 긴축 통화기조 유지

- 물가 상승률 2%대 유지 예상
 - 2016년 12월 이후 원유가격의 상승, 식품·연료가격 상승 및 임금상승의 압력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해 2017년 이후 2%대 수준 유지
 - 체코중앙은행에 따르면, 2019년 7월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임금상승 등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체코 재무부는 2019년 물가 상승률을 2.5%로 전망함
 - * 물가 상승률 : 0.4%(2014) → 0.3%(2015) → 0.7%(2016) → 2.5%(2017) → 2.1%(2018) → 2.5%(2019. 전망)
- 체코중앙은행 수차례 금리인상 단행, 긴축정책 유지

- 실업률 하락, 임금상승, 저금리 및 제한된 주택 공급으로 체코 주택가격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상승함. Eurostat에 따르면, 체코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7년 11.8%였으며, 2018년은 8.6%로 높은 수준임
- 체코중앙은행은 주택 시장 과열 방지, 가파른 임금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7년 8월 이후 여러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해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를 2.0%까지 인상함
 - * 정책금리 추이 : 0.25(2017년 8월) → 0.5(2017년 11월) → 0.75(2018년 2월) → 1.0(2018년 6월) → 1.25(2018년 8월) → 1.50(2018년 9월) → 1.75(2018년 11월) → 2.0(2019년 5월)

유로화 대비 체코 코로나 완만한 강세

- o 2017년 4월 외환시장 개입중단 이후 체코 코로나 유로화 대비 강세
 - 2017년 4월 외환시장 개입중단 이후 유로 대비 코로나 환율이 기존 27코로나/유로 수준에서 25.20코로나/유로 수준까지 내려가 지속적으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임
 - 2019년 7월까지 누적 평균 환율은 25.66 CZK/EUR를 기록했으며, 체코 재무부는 2019년에도 유로화 대비 체코 코로나의 완만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2019년 평균환율을 25.6 CZK/EUR로 전망함
 - * 평균환율(CZK/EUR)추이 : 26.53(2017. Q2) → 26.08(2017. Q3) → 25.65(2017. Q4) → 25.40(2018. Q1) → 25.60(2018. Q2) → 25.71(2018. Q3) → 25.86(2018. Q4) → 25.68(2019. Q1) → 25.69(2019. Q2)

다. 산업 환경

제조업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

- o 체코는 전통적 공업국으로 제조업이 기술 및 지식발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의 중요 부분 차지함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 자본의 제조업 분야 투자진출이 확대돼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
 - * 산업 구조(2018년, GVA 기준) : 서비스업(65.9%), 제조업(25.9%), 농림·광산업(2.9%), 건설업(5.37%)
- o 유럽 최저 실업률 및 임금 상승, 정부의 혁신기술 육성 등으로 제조업의 발전 방향이 단순 생산 기지에서 첨단 산업 발전으로 전환
 - 투자 인센티브 변경으로 R&D,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 등 분야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스타트업 및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중임

자동차 산업

- o 유럽 자동차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
 - 자동차 산업은 체코 산업 생산의 26%, 체코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체코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산업

- 체코는 연간 승용차 144만 대를 생산하는 유럽의 제5위 자동차 생산국
- 글로벌 100대 자동차 부품 기업 중 60여 개가 체코 내 위치하고, 총 850여 개의 자동차 Tier 1, 2, 3차 업체가 소재해 유럽 전역에 부품 및 완성차를 공급
- 체코 내 친환경 자동차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친환경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완성차 업체의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이 발표되면서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의료기기 산업

- 소득증가, 인구 노령화, 노후설비 교체, 의료관광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 성장
 - BMI 보고서에 따르면, CEE지역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이며, 1인당 평균 의료지출 금액은 CEE 평균을 상회함
 - 체코 의료기기의 수입 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주요 수입품은 내과·외과·치과·수의과용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 및 보철, 엑스선 의료기기 등임
 - 독일과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일본, 멕시코, 한국 등 비EU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2019년부터 발효된 신규 보험 상환 시스템으로 혈당 측정기, 패치 인슐린 펌프, 보청기, 휠체어, 목발 등 병원외부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보험혜택이 증가해 동 품목의 수요가 증가 예상
 - 또한, 정부의 치과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도시 치과 지원 확대로 치과용 의자, 엑스레이 장비 등 치과용 의료기기 수요도 증가 예상

라. 정책·규제 환경

체코 혁신전략 2019~2030

- 바비쉬 총리 직속 기관인 국가 연구개발혁신 위원회(RVVI)가 기업가, 과학자, 행정부 대표 등과 협력해 체코 혁신전략 2019~2030을 준비했으며, 2019년 2월 체코정부가 동 정책을 승인함
 - 고부가가치 및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과학, 연구 및 혁신 지원으로 2030년까지 유럽의 혁신 선도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
 - 과학, 연구 및 혁신 분야의 공공자금을 700억 코루나로 확대함

○ 주요 핵심 전략

R&D 국가	R&D 비중을 현재 체코 GDP의 1.8%에서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
기술교육	초·중등 교육의 기술교육 과정 혁신 및 통합, 첨단기술에 초점을 맞춘 대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스타트업 국가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및 자금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적 스타트업 및 스피노프 (spin-off) 환경구축
디지털 국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도시 등의 Industry 4.0 구현 지원
혁신, 리서치센터 구축	인공지능, 우주기술, 레이저 기술, 나노기술 등 잠재력 있는 미래 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기반 지원
스마트 국가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 Industry 4.0 구현 및 미래 산업 투자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단계 부터 제조 및 응용단계까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스마트인프라 국가	스마트 모빌리티 및 운송 텔레매틱스 시스템 지원, 건설 절차 간소화
스마트 마케팅	혁신 선도 및 창의적인 인재 국가 이미지 구축- 체코 연구센터의 우수성, 최첨단 기술, 성공적인 혁신 인물에 대한 마케팅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개발 추진

- 체코 정부 2016년 8월 ‘Initiative Industry 4.0’ 승인
 -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춰 체코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고자 전략계획을 발표함
 - 민간부문, R&D 분야, 산업협회, 학계가 적극 동참해 4차 산업혁명 구현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업·학계·연구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Core Team Industry 4.0)을 만들어 운영
 - 데이터 및 통신 인프라 구축, 교육 시스템 향상, 신기술 도입 기업 재정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1)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체코 기업의 능력 향상, 2) 보다 효율적인(신속, 경제적, 자원 효율적) 제조, 3) SW 솔루션, 특히, 생산라인 및 수출 노하우 개발을 위한 R&D 협력을 목표로 함
- OPEIC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지원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공공자금은 기존의 EU 펀드 운용 프로그램인 OPEIC(Operational Programme Enterprise and Innovation for Competitiveness, 45억 유로 배정)을 핵심 도구로 사용
 - 과학 활동 촉진, 비즈니스와 R&D 협력, 기술 분야 우수 노동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향상 (OP VVV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운영

2 시장 분석

- (시장 특성) 유럽 국가 연결하는 중심부 위치,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제조업 발달
- (수출) 높은 유럽 지역 대외의존도, 대(對)체코 무역흑자 유지
- (투자) 높은 외국인 투자유치, 한국의 중동부 유럽 2위 투자국
- (프로젝트) 2014~2020 EU 펀드 운용 프로그램 활성화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유럽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 체코는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해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인접, 국경 형성
 - 유럽 전역이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서유럽 소비시장 및 동유럽 성장시장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
- 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조밀한 교통망 구축
 - 총 1만 5,578km에 달하는 조밀한 철도망과 5만 5,748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구축해 원활한 육로운송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개발 활성화로 육로운송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유럽에서 4위의 철도수송 규모를 보유하고, 유럽 전역을 지리적으로 연계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EU 교통망 건설 프로젝트인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개발 구체화가 진행 중임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발달

- 2018년 기준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 GDP 비중이 26%로 유럽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임
 - 제조업 전체 매출액은 2018년 기준 4조 8천 770억 코루나(약 2,134억 달러)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함. 또한, 제조업 종사자는 약 128만 명, 제조업 기업 수는 약 178만 개임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산업, 금속 및 기계 산업 등 안정적인 기초산업 기반 조성
 - 자동차, 전동차, 기관차, 버스, 트럭, 터빈, 경비행기 및 헬기, 전투용 고등 훈련기, 대형 농업용 트랙터, 각종 공작기계 자체 생산

우수한 이공계 인력 공급

- 자동차, 터빈, 화학, 기계 등 부문의 기술력이 뛰어나며, 관련 인력 양성
 - 2018~2019년 기준 체코 대학생 수는 총 30만 명 수준이며, 대학졸업자 중 기술, 생명과학, ICT 분야 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전체 졸업자 중 53%에 이를 정도로 기술인력 양성이 활발

- WEF(World Economic Forum)의 2019 글로벌경쟁력 보고서의 교육 및 숙련도(Skills) 항목 29위(총 141개국) 차지

일상화되는 온라인·모바일 거래

- 체코 전자상거래협회에 따르면, 체코 온라인 시장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시장규모는 약 59억 달러(1,350억 코루나)로 전년 대비 17% 성장함
 - 전체 소매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2%에서 2018년에는 11.4%로 확대됨
 - 글로벌 투자은행 J.P. Morgan 자료(2019 Global Payments Trends Report)에 따르면, 2017~2021년 기간 동안 체코 온라인 시장 성장률은 16%로 유럽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체코 온라인 시장 규모(달러) 추이[성장률] : 29.3억[16%](2014) → 35.4억[21%](2015) → 42.9억[21%](2016) → 50.3억[17%](2017) → 59억[17%](2018)

- 스마트 폰 보급과 모바일 결제 기술 향상으로 체코모바일 전자상거래는 큰 폭으로 성장 중임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체코 모바일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억 9,000만 달러(181억 코루나)로 전년 대비 54%의 큰 폭으로 성장함. 또한, 2018~202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 22%로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소액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할 때 모바일 거래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 최근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모바일 거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체코 모바일거래 규모(달러) 추이 : 2.5억[34%](2015) → 3.3억[31%](2016) → 5.1억[56%](2017) → 7.9억[54%](2018)

나. 교역

교역 현황

-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 향후 수출 유지 예상
 - 2004년 EU 가입 이후 급격한 수출증가로 2005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7월까지 수출은 약 1,164억 달러, 수입은 약 1,0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4.0% 감소함.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4억 달러 증가함
 - 2019년에 2018년보다 달러 대비 코루나의 평균 환율이 상승해 체코 코루나 기준 수출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 2.9% 증가함
 - 체코 수출업체의 수출지수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수출에 대해 현상유지가 예상된다고 답함 그러나 현재 인력부족, 브렉시트, 최대 교역국인 독일의 경제하락세 등이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남아있음

체코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수출	금 액	157,880	162,716	182,236	202,751	116,360
	증감률	-9.8	3.1	12.0	11.3	-1.6
수입	금 액	141,366	143,041	163,374	185,102	102,892
	증감률	-8.3	1.2	14.2	13.3	-4.0
무역수지		16,514	19,675	18,862	17,649	13,469

자료 : 체코 통계청(2019년 9월 기준)

○ 높은 유럽 지역 대외의존도

- 경제 개방화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급속히 확대돼 OECD에서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함. 2018년 기준 GDP 대비 수출 비중은 84%, 수입 비중은 77%를 차지함
- 유럽 국가와 교역이 대부분으로, 2019년 7월 기준 유럽 국가의 교역이 전체의 81%로 수출의 경우는 무려 91%를 차지하며, 수입 역시 70%를 차지함

○ 국별 수출 현황

- 최대 수출국은 독일로 체코 수출입 품목의 대부분은 독일의 최대 수출국임. 2018년 기준 대(對)독일 수출이 전체 수출의 32.4%를 차지하기 때문에 체코의 수출은 독일 경제상황에 따른 상당한 영향을 받음
- 2019년 7월 기준 10대 수출대상국은 모두 유럽 국가며, 유럽 외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11위), 러시아(13위), 중국(17위)임 특히, 대(對)미국 수출(주요 수출품 휴대폰 부품, 제약 기계, 전기모터 등)은 전년 대비 15% 증가해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 한국은 체코의 37위 수출대상국이며, 최근 2년간 수출이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함

체코의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대상국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독일	59,414	12.8	65,675	10.5	37,046	-3.7
2	슬로바키아	13,924	2.7	15,303	9.9	8,691	0.8
3	폴란드	10,912	16.3	12,271	12.4	6,936	-2.3
4	프랑스	9,284	10.3	10,297	10.9	6,213	-0.1
5	영국	9,026	5.9	9,399	4.1	5,285	-6.3
37	한국	456	3.6	493	8.0	277	-0.8
총 수입		182,236	12.0	202,774	11.3	116,360	-1.6

자료 : 체코통계청(2019년 9월 기준)

○ 국별 수입 현황

- 2019년 7월 기준 최대 수입국은 독일로 전체 수입의 25%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중국 (14.1%), 폴란드(7.7%), 슬로바키아(4.5%) 순임
- 중국은 2019년 7월 기준 10대 수입국 중 7.1%의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체코의 대(對)중국 주요수입품은 통신기기 및 부속 부품, 자동차로 처리장치 및 부분품, 모니터 및 프로젝트 등임
- 현지 진출 기업의 부품수입에 힘입어 한국은 제12위 수입국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다음으로 수입 비중이 높음

체코의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입대상국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독일	42,159	11.4	46,376	10.0	25,585	-6.5
2	중국	20,510	16.1	26,052	27.0	14,536	7.1
3	폴란드	12,620	6.7	14,193	12.5	7,884	-4.3
4	슬로바키아	7,893	8.5	9,205	16.6	4,633	-12.2
5	이탈리아	6,884	11.6	7,713	12.0	4,324	-7.0
12	한국	4,246	21.0	4,283	0.9	2,258	-10.7
총 수입		163,374	14.2	185,102	13.3	102,892	-4.0

자료 : 체코통계청(2019년 9월 기준)

○ 품목별 수출

- 체코는 유럽 제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최대 수출품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임. 2019년 7월 누적 기준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는 11.3%, 자동차 부품은 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주요 수출품목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수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은 소폭(5%) 감소함.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32% 증가한 통신기기 및 부속 부품으로 특히 주요 수출국 중 미국(499% 증가), 이탈리아(409%)에서 큰 수출증가를 기록함

체코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8703	21,244	13.6	22,692	6.8	13,139	0.1
2	자동차 부품	8708	14,666	8.7	15,581	6.2	9,154	-5.0
3	자동차로처리장치	8471	10,381	33.3	13,403	29.1	7,612	2.3
4	통신기기 및 부품	8517	6,445	35.4	9,407	45.9	5,853	32.2

5	의자(차량용 의자 포함) 및 부분품	9401	3,401	13.5	3,494	2.7	1,933	-11.1
6	전선·케이블	8544	2,995	14.6	3,405	13.7	1,925	-7.3
7	전기회로 기기	8536	2,778	16.7	3,276	18.0	1,788	-10.1
8	액체펌프	8413	2,226	7.9	2,461	10.5	1,444	-4.3
9	전기식조명	8512	2,308	8.8	2,441	5.8	1,305	-14.7
10	의약품	3004	1,802	5.8	2,071	14.9	1,276	6.5
총 수출			182,336	12.0	202,774	11.3	116,360	-1.6

자료 : 체코 통계청(2018년 9월 기준)

○ 품목별 수입

-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산업 발달로 자동차 부품이 상위를 차지하며, 그 외에 통신기기 및 부속 부품, 자동차자료처리장치, 자동차, 의약품 등이 주요 수입품목임
- 2019년 7월까지 수입은 통신기기 및 부속 부품, 의약품, 석유가스를 제외한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이 감소함
- 통신기기 및 부속 부품의 경우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가 주요 수입국이며, 16위 수입국인 인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이 5배 이상 크게 증가함

체코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17년		2018년		2019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부품	8708	10,184	11.8	11,173	9.7	6,589	-0.9
2	통신기기 및 부품	8517	6,398	37.0	9,823	53.5	5,424	23.5
3	자동차자료처리장치	8471	6,648	22.9	8,020	20.6	4,269	-2.7
4	의약품	3004	3,626	9.8	4,071	12.3	2,519	3.4
5	자동차	8703	4,455	15.7	4,247	-4.7	2,410	-8.9
6	석유와 역청유(원유)	2709	3,178	88.4	3,968	24.9	2,066	-3.8
7	전선 및 케이블	8544	2,511	18.0	2,905	15.7	1,612	-5.2
8	전자집적회로류	8542	3,273	40.4	3,722	13.7	1,611	-32.5
9	의자(차량용 의자 포함) 및 부분품	9401	2,245	19.9	2,355	4.9	1,323	-9.0
10	석유가스, 탄화수소	2711	2,104	2.1	2,397	14.0	1,303	7.1
총 수입			163,374	14.2	185,102	13.3	102,892	-4.0

자료 : 체코 통계청(2019년 9월 기준)

다. 투자진출

- 체코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누계 기준 FDI는 약 1,560억 달러이며, 2018년에는 94억 7,7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됨
 - 1998년 5월 투자 인센티브법 도입 이후 FDI 유치를 가속화하고, EU 가입 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2019년 9월 6일부터 고부가가치 투자에 집중된 투자 인센티브 개정안 시행, 제조업 투자 혜택은 축소하고, R&D 투자 및 SW/IT 개발 투자 혜택 확대

최근 연도별 체코의 투자유치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제조분야	2,924	△1,541	7,506	7,923	7,930
제조분야	2,571	2,006	2,312	1,596	1,547
총	5,495	465	9,818	9,519	9,477

*주 : 2018년 잠정치

자료 : 체코중앙은행(2019년 9월 기준 최신 자료)

- 분야별 투자 동향
 - 2017년 FDI 누적기준으로 비제조업 분야가 약 70.8%, 제조업 분야는 29.2%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 자동차 산업이 20.3%의 비중을 차지함
 - 서비스 부문은 금융 서비스, 부동산,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최근 체코투자청은 향후 항공우주 산업, 친환경 경자동차, 첨단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유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국별 투자현황
 - 체코중앙은행의 FDI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누계 기준으로 네덜란드(310억 달러), 독일(254억 달러), 룩셈부르크(240억 달러) 3개국으로부터 투자가 전체의 약 52%를 차지함
 -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주 투자국으로 체코 투자청에 따르면, 투자 프로젝트 규모로 한국은 독일, 네덜란드 다음의 3위 투자국이며, 일본은 한국 뒤를 이어 4위 투자국임
 - * 1998~2019년 6월 말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신청한 투자 프로젝트 규모 기준
 - 체코투자청 자료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 노쇼비체 공장투자가 최대 규모(약 14억 달러)이며, 최근 3년간 최대 투자건은 2014년 넥센타이어의 자테츠 지역 생산공장 설립 투자임(약 9.6억 달러)
 - 제만 대통령의 친중국 외교와 함께 중국의 대규모 투자논의가 이뤄졌으나, 중국기업의 체코 투자진출은 미미한 수준(투자청 자료 기준 20위)이며, 실질투자도 부동산이나 소비부문에 집중돼 체코 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국투자의 기대는 낮아지고 있음

○ 투자 진입장벽

- (인력고용 어려움) 지속되는 장기 완전고용으로 진출기업은 현지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잦은 이직과 임금상승도 노무관리의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개정) 2019년 9월 투자 인센티브가 개정돼, 모든 프로젝트가 정부의 심사 후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게 됨. 또한 제조업 투자의 경우 고부가가치 조건이 추가되고, 고용 및 훈련보조금 인센티브가 취소돼, 향후 제조업 투자 위축이 예상됨
- (까다로운 비자발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비자는 발급 시 체코어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4~5개월 정도로 오래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최대 2년까지만 발급 가능해 매번 갱신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투자기업으로서는 비용과 시간 소요 발생

라. 프로젝트

 **EU 기금 운용 프로그램 집행 활성화**

- 2007~2013년 EU 투자기금 집행은 2015년 하반기에 집중됐으며, 2014~2020 EU 투자기금 운용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실행 중
 - 2019년 8월 말 기준 전체 기금 중 전체의 79%인 4,574억 코루나(약 194억 달러)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며, 이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42%인 약 2,401억 코루나(약 102억 달러)로 아직 절반 이상이 남은 기간 동안 지급돼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기간 막바지인 2020년에 EU 기금 집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추진 현황**

- 체코 정부는 2007~2013년 EU 펀드 운용 프로그램에 이어 2014~2020년 EU 구조투자기금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 240억 유로를 배정받음

2014~2020년 EU 기금 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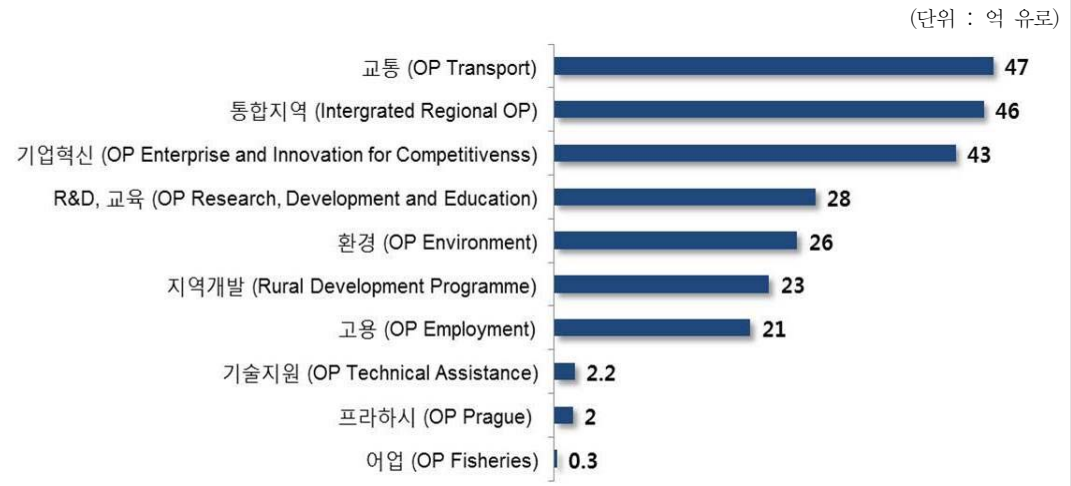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

EU 기금	금액	비중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12,160	50.3
결속기금(CF)	6,260	25.9
유럽사회기금(ESF)	3,430	14.2
유럽농업기금(EAFRD)	2,300	9.5
유럽해양어업펀드(EMFF)	31	0.1
청년고용지원(YEI)	13.6	0.0
합계	24,194.6	100

자료 : EU 집행위원회

- EU 펀드 운용 프로그램의 배정액은 총 238억 5,000만 유로로 교통(47억 유로), 통합지역(46억 유로), 기업혁신(43억 유로), 환경(26억 유로), 프라하시(2억 유로 등) 프로젝트 등에 걸쳐 총 10개 OP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중

2014~2020년 EU 펀드 운용 프로그램



자료 : 체코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CZ)

○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 EU 기금 운용 프로그램 중 47억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TEN-T 구간을 포함한 철도 및 도로, 공공인프라 개선, 기술 지원 등 분야에 투입
- 약 19억 달러 규모의 프라하 메트로 D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고속도로 주요 구간 건설 프로젝트 활발히 진행 중

교통 운용 프로그램(Transport OP) 분야별 비중 현황

(단위 : %)

분야	비중
철도 및 기타 지속 가능한 운송인프라	51.8
TEN-T 네트워크 도로 인프라, 친환경 차량 및 도로교통 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27.1
도로 인프라(TEN-T 네트워크 제외)	19.5
기술 지원	1.5

주 :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 유럽 지역을 지리적으로 연계하는 EU 교통망 프로젝트

자료 : 체코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CZ)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고속 도로	지역	구간	길이 (km)	건설 예정일정
D11	Hradec Kralovec	Trutnov-체코·폴란드 국경	21.18	2021~2023
D35	Olomouc, Pardubice	Staré Město-Mohelnice	21	2024~2027
D11	Hradec Kralovec	Jaroměř-Trutnov	19.63	2022~2024
D48	Moravia-Silesia, Olomouc	MÚK Běloutín-Rybí	17.34	2019~2023
D3	Central Bohemia	Václavice - Voračice	16.70	2024~2028
D7	Central Bohemia	Slaný-hranice Stč	16.66	2022~2024
D35	Pardubice	Opatovec-Staré Město	16.60	2023~2027
D3	Central Bohemia	Voračice - Nová Hospoda	16.46	2024~2028
D49	Zlin	Hulín-Fryšták	16.43	2019~2023
D35	Hradec Kralovec	Úlibice-Hořice	16.35	2026~2029

자료 : 체코 도로·고속도로관리국(ŘSD)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수출입 동향

- 양국 간 교역은 2007년 현대자동차의 체코 생산투자에 힘입어 본격화되었으며,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이후 20억 달러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대(對)체코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18년에 양국 교역은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함. 수출은 전년 대비 10.8% 증가, 수입은 20.7%의 큰 폭으로 상승함
 - 반면, 2019년 8월까지 양국의 총 교역 수출입 모두 감소해, 수출은 전년 대비 11.7%,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함

연도별 대(對)체코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8월
수출	수출	2,040	2,176	2,212	2,452	1,441
	증감률	12.6	6.6	1.7	10.8	-11.7
수입	수입	577	619	716	864	556
	증감률	3.4	7.3	15.6	20.7	-2.1
무역수지		1,463	1,557	1,496	1,588	885
총 교역량		2,617	2,795	2,928	3,316	1,997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년 9월 기준)

○ 품목별 수출 동향

- 자동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현대자동차 및 다수의 협력업체가 진출해 자동차 부품은 전체 대(對)체코 수출의 35%로 큰 비중을 차지
 - * 2018년 주요 수출품(비중) : 자동차 부품(34.8%), 원동기 및 펌프(7.1%), 컴퓨터(5.7%), 기타 철강금속 제품(5.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4.9%)
-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조달 증대 노력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금액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2019년 8월까지의 10대 수출품목의 대부분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원동기 및 펌프, 기타 계류, 계측제어분석기 품목만이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함

대(對)체코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MTI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 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2	자동차 부품	854	-9.6	853	-0.1	519	-5.5
2	711	원동기 및 펌프	173	12.9	173	-0.1	111	2.7
3	690	기타철강금속제품	123	56.6	134	9.5	78	-10.4
4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9	274.1	119	102.8	58	-19.9
5	214	합성수지	71	1.2	86	21.9	48	-19.9
6	813	컴퓨터	137	22.3	139	1.4	46	-54.4
7	741	자동차	74	19.2	83	11.9	46	-16.3
8	790	기타기계류	49	-42.7	36	-27.9	41	45.8
9	815	계측제어분석기	45	6.7	54	19.8	40	32.2
10	751	기계요소	56	15.9	64	13.7	39	-4.7
총수출			2,212	1.7	2,452	10.8	1,441	-11.7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년 9월 기준)

○ 품목별 수입 현황

- 대(對)체코 주요 수입품목 중 자동차 부품과 전자현미경(전자응용기기)이 큰 비중을 차지함. 2018년 기준 수입증가율은 20.7%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계측제어분석기와 원동기 및 펌프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2018년 주요 수입품(비중) : 자동차 부품(16.4%), 전자응용기기(13.3%), 원동기 및 펌프(8.9%), 계측제어 분석기(8.1%), 기계요소(6.4%)

- 2019년 8월까지 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컴퓨터 수입이 전년 대비 522%로 대폭 증가함

대(對)체코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2019년 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2	자동차 부품	125	17.9	142	13.7	83	-17.3
2	814	전자응용기기	105	48.8	115	8.9	67	2.9
3	815	계측제어분석기	23	39.2	70	208.2	57	23.7
4	711	원동기 및 펌프	50	18.5	77	55.0	45	-6.6
5	751	기계요소	31	26.3	55	74.6	33	9.7
6	320	고무 제품	22	49.4	22	1.4	20	37.2
7	813	컴퓨터	11	30.4	8	-27.2	19	521.5
8	842	산업용 전기기기	22	48.7	19	-12.7	13	-3.6
9	310	플라스틱 제품	21	8.6	19	-10.5	12	-0.6
10	826	조명기기	15	47.3	17	18.6	11	-6.4
총수입			716	15.6	864	20.7	556	-2.1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년 9월 기준)

수출 성공 사례 : A사의(비)파괴 시험기 체코 대학 공공조달 입찰 성공(약 20만 불)

- 무역관에서는 공공조달 입찰 전 조달 기관과의 미팅을 통해 조달에 대한 세부 내용(ex. 일정, 조달 참가 시 유의 사항)을 파악하여 국내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체코 대학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체코에서 찾기 힘든 제품으로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공공조달 입찰 참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입찰 참가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성약 소요기간	약 6개월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국내기업 개별 네트워크)
바이어 D/B	· 체코 내 입찰정보사이트, HBI, KOMPASS
유망 전시회	· 체코 브르노 기계엔지니어링 전시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높은 품질) 독일, 일본 등과 견주어도 뛰어난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입찰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음. 체코 대학은 A사 제품과 유사 제품을 찾고 있었던 차나 A사 제품을 파악, 체코 대학에서는 A사 제품의 스펙을 바탕으로 입찰을 진행함 (입찰 진행 상황 파악) 현지 무역관을 통해 조달 담당자와의 1:1 미팅을 통해 입찰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입찰에 간접 참가할 수 있었음

수출 성공 사례 : B사의 음식물처리기 샘플 수출

- 무역관은 한국에서 음식물처리기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 인콰이어리를 접수, KOTRA에서 지원하는 개별방한 바이어 지원서비스를 통해 바이어 방한 출장을 밀착 지원 시행
- 무역관 자체적으로 국내기업을 발굴한 것 외에도 본사 수출전문위원을 통해 바이어 스펙에 맞는 적정 국내기업과의 상담을 주선
- 상담 시에도 본사 수출전문위원이 동행하여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이후 바이어는 공장 방문을 통해 제품을 직접 확인 후 샘플 구매 후 테스트 시행에 동의
- 테스트 이후 독점 계약 등 거래 세부조건을 논의할 예정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성약 소요기간	약 3개월
바이어 발굴경로	<input type="checkbox"/> Telemarketing <input type="checkbox"/> 전시회 <input type="checkbox"/> Sales Rep. <input type="checkbox"/> PR ag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인콰이어리)
바이어 D/B	· 체코 내 입찰정보사이트, HBI, KOMPASS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기술력) 국내기업 제품은 미생물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음 (KOTRA 협력) 무역관-본사 수출전문위원과 교신을 통해 바이어 인콰이어리와 맞는 국내기업과 상담주선을 하여 바이어와 국내기업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2개월 만에 샘플 수출에 성공 하였음

나. 투자

대(對)체코 한국의 투자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2019년 3월 누적 기준 대(對)체코 투자는 신고 기준 257건 약 19억 5,680만 달러, 투자 기준 약 16억 2,113만 달러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신고금액 기준으로 체코는 한국의 41위 투자대상국이며, 중동부 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2대 투자대상국

대(對)체코 투자진출 동향

(단위 : 건, 개, 천 달러)

신고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57	89	1,956,804	303	1,621,134

주 : 2019년 3월까지 누적 기준, 법인수는 지사 및 지점 포함 수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9월 기준)

- 체코중앙은행 집계 2017년 누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체코 FDI 금액은 약 34억 달러로 체코 전체 FDI의 2.2% 차지(전체 국가 중 12위, 비EU 지역 최대 투자국)
 - * 중앙은행은 금융 분야와 자본투자, 재투자 금액을 포함하여 투자통계로 산정
- 체코 투자청에서 발표한 투자 인센티브 신청 프로젝트 규모 기준, 누적투자금액(1998~2019년 6월말)은 약 32억 달러로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3위 투자국
- 체코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 2006년을 전후로 진출한 현대자동차*(14억 달러)를 필두로 한 계열사 및 협력사, 유관품목 생산업체들로 구성
 - 제조업체들의 경우 주로 동부 모라비아 지역에 진출한 가운데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 등 10여 개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 등은 프라하 인근에 소재
 - * 현대자동차 투자는 한국의 대(對)체코 투자 중 최대 규모이며, 20여 개 사가 넘는 1, 2차 협력업체 동반 진출
- 두산중공업은 2009년 스팀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의 스코다파워 지분 100%를 4억 5,000만 유로에 인수, 발전소 3대 핵심 설비 원천기술 확보(M&A의 대표적 벤치마킹 사례로 꼽힘)
- 2014년 넥센타이어, 현대모비스 등 거액의 투자 지속
 - 2014년 6월 넥센타이어가 북서쪽 자테츠 지역에 10억 3,000만 달러의 타이어 공장 건설투자 결정, 2019년 8월 공식 생산 시작
 - 2014년 7월 현대모비스가 오스트라바 인근 산업단지에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램프 공장 건설 투자협약 체결
 - * 체코 산업부 주관 2014년 올해의 투자상에서 넥센타이어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1, 2위를 차지

주요 한국기업 진출현황



자료 : KOTRA 프라하 무역관

투자 성공 사례 : 두산중공업의 체코 스코다파워 인수 건

- 두산중공업은 2009년 스팀터빈 원천기술 보유 체코기업인 스코다파워를 인수(약 4억 5천만 유로)
- 스코다파워 인수를 바탕으로 두산중공업은 발전소 3대 원천기술(보일러, 터빈, 발전기)을 모두 보유하게 됨
- 체코에 진출한 대부분 기업이 공장설립을 토대로 진출하였으나, 두산중공업은 M&A를 통해 진출하였으며, 동 M&A는 체코 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M&A로 꼽히고 있음
 - 매출액 : 3,414억 원(2009) → 4,170억 원(2016)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체코 원전산업 수주를 발판으로 한 양국 협력 확대

- 2015년 5월 체코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State Energy Policy, SEP)을 통해 석탄 비중을 축소하고, 원전을 확대하는 전략을 수립
 - 체코는 총 6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2040년까지 두코바니 및 테플린 지역에 각 1~2기의 원전 건설 예정으로 두코바니 1기는 2035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함
 - 원전 1기당 건설비용은 약 45억 달러로 추정

* 2017년 원전 전력생산량은 28,339.6GWh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33%를 차지

- 2016년 10월, 체코 정부는 잠재공급사*로부터 기술정보요구서(RFI) 답변서 접수
 - * 한수원, 웨스팅하우스(미), 로사툼(러), CGN(중), EDF(프), ATMEA(프-일)
- 2019년 중 원전 세부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 중 사업자 선정 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전망
 - 한국(한수원)의 유력한 경쟁자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꼽히고 있음
 - 한국은 한수원을 필두로 체코 원전사업을 위한 현지 인지도 제고,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수주활동을 추진 중
 - 향후 체코 원전 공급자로 한국이 선정될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견·중소기업의 체코 및 유럽 진출의 획기적 계기 마련 가능



Ⅲ. 진출전략

- ▶ 체코 정부 주도의 임금상승 등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로 고급 소비재, IT 소비재 시장 진출 가능성 다대
-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변경 안에 맞춘 투자진출
- ▶ 본격적인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맞추어 관련 부품 및 인프라 진출 가능
- ▶ 2020년까지 소진되어야 하는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접근을 위해서는 현지 정보 수집 및 현지 협력업체 발굴이 필수
- ▶ 2020년 원전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대중소기업은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정보 수집 필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체코 시장 SWOT 분석>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S</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강점 (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부 유럽의 중심 •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조업 발달 • 정부의 우호적인 투자유치 정책 • 한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 확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W</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약점 (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00만의 소규모 경제 • 인근 동유럽 대비 높은 임금상승률 • 고급인력의 서유럽 유출 지속 • 수출 및 서유럽 의존 경제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O</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0C0;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기회 (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인 친환경 자동차 생산 • 낮은 실업률을 바탕으로 안정된 내수경제 • 임금인상 → 소득증가로 고급 소비재 수요 확대 • 온라인·모바일 시장 성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margin-bottom: 10px;">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709238;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709238; color: whit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위험 (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제조업 강국과 경쟁 심화 • 미국발 통상전쟁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증대 • 투자 인센티브 변경에 따른 시장 환경 변경 • 낮은 실업률로 노동인력 부족 심화 </div>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성장하고 있는 체코 경제를 활용, 중산층 타겟 및 프리미엄 소비재 발굴	고급 소비재를 필두로 시장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 단순 생산거점에서 탈피, 바뀐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고려	제조업 R&D 협력강화
WO 전략 (기회 포착)	• 체코만을 위한 진출이 아닌 서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체코를 테스트마케팅으로 활용	체코 온라인 시장 적극 활용
WT 전략 (위험 대응)	• EU 규제 등으로 바뀌는 시장 및 통상 환경의 틈새시장 기회 발굴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산업 협력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내수활성화) 온라인 시장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제품·서비스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임금상승을 반영한 소득증가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체코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오프라인 유통 채널보다는 온라인·모바일 시장 성장속도가 가파른 편
- 최신 트렌드에 소극적이었던 체코 시장이 과거 대비 트렌드에 적극적인 시장으로 변화 중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일상 생활용품 온라인 구매 증가, 온라인 구매 점차 생활화
 - 전통적으로 전자 제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생활용품, 식품류 등 일상제품의 온라인 구매도 증가 추세
 - 2018년 온라인 시장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품목은 식품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성인용품, 취미용품, 미용·건강 등 기존에 온라인 구매가 크지 않았던 품목의 온라인 구매도 전년 대비 23~33%의 큰 폭으로 증가함
- 유통채널 다변화로 초기 진입 가능성 확대
 - 체코는 유럽에서 온라인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8년 유럽 전체 온라인 시장 규모는 약 59억 3,430만 달러(1,350억 코루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 유럽 전체 성장률인 11%를 웃도는 17% 성장률을 기록
 - 온라인 채널은 기존 유통채널보다 용이하게 신제품 진입이 가능해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스마트기기(웨어러블, 스마트홈 제품, VR 제품 등), 천연화장품, 유기농 식품 등 신제품 유통 채널이 온라인으로도 확대 중
- 유럽에서 찾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바이어 관심 다대
 - SNS의 발달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트렌드 제품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
 - 저가 제품을 선호하던 트렌드에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이나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한국 IT 제품은 유럽산 제품 대비 독특한 아이디어나 고급제품이라는 인식이 높은 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요 온라인몰 벤더 파악 후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주요 온라인몰은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 벤더를 통해 납품을 받는 구조가 대부분으로 유망 벤더와의 협력이 중요
 - 제품 설명, 포장 라벨링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부분은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A/S 기간 준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 유럽 내 필요 인증은 진출 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취득하는 것이 중요
 - 유럽 인근 국가와의 거래에 익숙한 일부 체코 바이어들은 인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최종 계약 전 인증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유럽 인증(CPNP) 보유 기업일수록 빠른 시일 내에 온·오프라인에 동시에 접근이 가능함
 - 특히 체코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일찍 진출한 기업일수록 시장 점유율 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전에 단축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
-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SNS 등 적극 활용
 - 한국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현재까지 타 유럽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브랜드 및 품질 마케팅 필요

2-2. (스마트투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접근 필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임금인상 등 경제성장 사다리에 따라 단순 제조업 위주의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개정 완료
- 체코 '혁신전략 2019~2030'을 바탕으로 유럽 내 선도적 혁신국가를 목표로 하여 고부가가치 및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9년 9월 6일 자로 체코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 개정안을 시행
 - 기존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체코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체코에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는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함
- 체코는 산업 구조 다변화를 위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을 변경하여 첨단 산업 육성에 주력하기 위해 '혁신전략 2019~2030' 발표
 - '혁신전략 2019~2030'은 총리 직속 기관인 국가 연구개발혁신 위원회가 기업가, 과학자, 행정부 대표 등과 협력하여 준비하였으며, 2019년 2월 정부 승인
 - 임금경쟁력을 활용한 단순 생산가공,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높은 대외의존도, 성장 잠재력 정체,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함

- 정부 차원에서 로봇 및 정보과학, 첨단소재산업, 생명공학, 전기자동차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정하고, 관련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지원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체코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변경된 투자 인센티브 진행사항을 관심 필요
 - 체코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임금상승률로 인하여 기 진출한 외투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음
 - 물론 서유럽 대비 체코의 인건비는 저렴한 편이나 이 부분이 대(對)체코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 체코 투자청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가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심사하며, 정부 심사 시 투자 제안서가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투자희망 분야는 항공, 자율주행, E-mobility, 자동차 경량화, 비즈니스 서비스, 전기·전자분야, ICT, 데이터센터, 생명과학, 나노 기술임
- 체코 ‘혁신전략 2019~2030’ 관련 세부 정책 및 협력 가능 분야 모니터링
 - 체코 정부는 ‘혁신전략 2019~2030’ 내 9개 분야를 통해, 기초 R&D 투자부터 실제 산업기술에 적용하여 체코 내에서의 최종 완성품 생산까지의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함
 - 이 중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 R&D 분야, 공장자동화 등 자동차 산업의 현대화 분야에 있어서 한-체코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2022년 완공 예정인 BMW사의 자율주행 테스트센터는 미래기술 시험장으로 운영 예정으로 체코 투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둔 바 있음

2-3.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증가 및 체코 정부 정책 변경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체코 정부는 2015년 Clean Mobility 액션 플랜을 도입한 바 있으며, 2020년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될 예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21년부터 EU 역내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유통 금지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찾는 소비자 증가 추세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EU는 2020년부터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1km당 130g에서 95g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으며, 2030년까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보다 37.5% 더 감축하기로 합의함
 -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 g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코뿐만 아니라 전 EU 완성차 업계의 중요 화두가 되고 있음

- 체코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스코다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트렌드에 맞추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 생산을 본격화 할 예정
 - 2018년 첫 전기차 모델인 Citi go iV의 선주문을 받았으며, 2022년 말까지 전기차 모델시리즈 iV를 10개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전체 판매에서 전기자동차 점유율을 25%까지 확대할 예정
- EU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품용기, 접시, 식기류, 빨대, 면봉 등의 역내 유통금지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 발표
 - 더불어 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을 5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체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
 - 현재 체코는 기업과 정부 지자체만 친환경 자동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시민이 친환경 자동차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지원책 마련 요구가 증대
 - 2030년까지 25만대의 전기자동차 사용 및 대체연료 차량 비중을 전체 차량의 10% 비중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 확대 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
- 친환경 자동차 부품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 품목이 유망
 - 스코다 자동차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으로 배터리, 전기장비 등 전기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코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전기자동차 공급망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임
 -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체코 교통부는 향후 1,3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설에 약 12억 코루나를 투자할 계획임
 - * 한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설 기술력에 관심을 보인 바이어가 무역관을 통해 프라하 전기자동차 충전소 프로젝트에 국내기업과 협력 희망한 바 있음
- 친환경 포장재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장 접근
 - 일회용 제품 사용 규제로 인해 맥도날드, 버거킹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종이 빨대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역시 종이봉투 또는 재생 가능한 봉투를 제공 중
 - 일련의 규제 등으로 환경에 대한 과거 대비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경우 체코 시장 내 좋은 이미지를 구축 가능
 - 특히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현지 마케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

3 한-체코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원전수주) 2020년 사업자 선정 예정인 원전프로젝트 대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체코는 총 6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향후 두코바니와 테를린 각 지역에 1~2기의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함
-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 대비 관련 정보 수집 및 대응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체코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력발전이 약 50%, 원자력이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에너지 정책에 따라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50%까지 높일 계획임
- 신정부 구성, 재원조달 모델 선정 등으로 원전 프로젝트는 기존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으나, 원전 설립의 필요성은 체코 정부 역시 동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이 필요
 -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현지 인지도 제고,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주기적인 원전 관련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한국에 우호적인 현지 분위기 조성
 - 국내 기자재 업체와 우수한 현지 기자재 업체의 매치메이킹을 지원, 기술교류, M&A 등을 통해 현지화 비중을 확대
 -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 체코뿐만 아니라 인근 동유럽 국가들도 원전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바, 체코를 기반으로 하여 제3국 동반 진출 강조 및 지원

3-2. (EU 프로젝트) 유망 프로젝트 타깃 후 현지화 접근 전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체코는 2014~2020년 EU 구조기금으로 240억 유로를 배정받았으며, 자금 소진을 위해서는 꾸준한 집행이 필요
- EU 기금이 포함된 프로젝트는 한국기업이 단독으로 참여가 불가능한바,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EU 구조기금 중 교통인프라에 47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어 가장 큰 비중 차지

- 이 외에도 ICT 솔루션 개발, 공장자동화, 노후화된 의료시스템 현대화 등 여러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 2019년 8월 말 기준 전체 기금 중 79%가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42% 수준으로 기금 소진을 위해 2020년 집중적으로 기금 소진을 할 것으로 예상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역량 있는 로컬파트너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 참가
 - EU 지역 소재 업체, 유럽 지역 프로젝트 레퍼런스 보유 유무, 현지어 입찰서류 작성제출 등의 장벽 극복이 관건
 - 현지 체코어로 입찰이 진행되고, 현지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행 등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이 절대적으로 필요
 - 원활한 현지정보 입수를 위해서는 현지 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유지·보수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
-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 선제안
 - 체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뚜렷한 사업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아 EU 기금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우리기업이 먼저 EU 기금의 각 운영 프로그램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사업 추진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4 진출 시 유의사항

낮은 MOQ	이메일 해킹 등 무역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대다수의 바이어가 낮은 MOQ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는 약 1천만 정도 작은 시장이며 유럽기업과 거래가 빈번하여 소량 오더를 선호 ▪ (대응전략) 유연한 MOQ 전략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시작 시 유연한 MOQ 전략으로 바이어와 첫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이메일 해킹으로 계좌번호 변경을 안내하는 사기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A 국내기업은 이메일 해킹으로 잘못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피해 발생(약 5만 불) ▪ (대응전략) 송금 전 변경사항에 대해 이중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SNS 등을 통해 변경사항에 대해 이중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SWIFT 코드나 은행명을 통해 거래선 국가에 위치한 은행인지 확인
거래조건 논의 시 물류비 고려	유럽 최저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한국과 거래가 익숙지 않은 바이어는 높은 물류비에 거래논의 중단이 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사와 거래를 논의하던 체코 바이어는 최종 협상 시 오더금액보다 높은 물류비로 인해 구매결정을 보류 ▪ (대응전략) 제품 가격 산정 시 물류비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조건 논의 또는 견적서 송부 시 운송조건을 명확히 송부 및 협의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유럽 최저 실업률인 2%로 임금상승 및 인력난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속적인 임금상승과 낮은 실업률로 인력 고용에 애로 사항 발생 - 인근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라는 투자 메리트가 다소 약해지는 추세 ▪ (대응전략) 생산 효율성 향상 투자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자동화, 로봇화 투자 등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8/US\$천)	369,051	대한수입액('18/US\$천)	3,347
	선정사유	K-Beauty 인기 등으로 국내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증가 추세		
	시장동향	세포라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한국산 화장품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판매 중		
	경쟁동향	많은 국내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해 있어 국내기업 간의 경쟁 역시 심화. 또한 한국산 제품은 시장 내 고가 제품으로 구분 중		
	진출방안	화장품 유럽 인증(CPNP)을 사전에 취득하여 바이어 접근이 필요하며,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현지 마케팅도 동반되어야 함		
품목명 2	HS Code	8543.70	수입관세율(%)	0%
미용의료기기	수입액('18/US\$천)	260,819	대한수입액('18/US\$천)	2,519
	선정사유	한국산 미용의료기기에 대한 꾸준한 바이어 수요가 및 품질과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바이어 의견		
	시장동향	내수증가로 피부관리 등 자기관리에 관심있어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주 수입국은 독일과 중국으로 양국과의 경쟁이 필수		
	진출방안	한국산 의료기기는 EU 품질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 제시 및 CE 인증 획득이 중요		
품목명 3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18/US\$천)	595,040	대한수입액('18/US\$천)	10,448
	선정사유	체코 의료시장 규모는 2020년 1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의료기기 대부분이 노후화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며, 관련하여 EU 기금 지원 예정		
	경쟁동향	독일 제품이 시장 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미국, 일본 등과 경쟁 필요		
	진출방안	체코 내 의료기기 유통을 위해서는 CE뿐만 아니라 체코 내 의료기기 관리 시스템(SUKL) 등록 필수		
품목명 4	HS Code	8214.20	수입관세율(%)	0%
네일케어용품	수입액('18/US\$천)	4,200	대한수입액('18/US\$천)	319
	선정사유	K-Beauty 인기 등으로 화장품뿐만 아니라 네일케어 제품에 대한 인기 역시 상승 중		
	시장동향	한국은 수입 3위 국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최근 무역관으로 바이어들의 문의가 잦은 편		
	경쟁동향	수입 대부분의 가까운 독일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양국과의 경쟁이 필수		
	진출방안	체코는 소규모시장으로 소규모 오더에 응대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함		
품목명 5	HS Code	N/A	수입관세율(%)	0%
IT 융합 소비재 *소비재는 다양하여 HS Code 지정불가	수입액('18/US\$천)	N/A	대한수입액('18/US\$천)	N/A
	선정사유	한국산 IT 제품은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바이어들의 기대 심리가 높은 편임		
	시장동향	체코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진출 시 체코 시장을 테스트마켓으로 활용 가능		
	경쟁동향	소량 MOQ를 선호하는 현지시장 특성을 고려하며,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제품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		
	진출방안	유럽 진출 시 필요한 인증(CE, RoHAS) 획득은 기본이며, A/S, 현지 언어 적용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관광	선정사유	프라하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
	시장동향	2018년 체코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는 약 41만 명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함
	경쟁동향	한국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관광 관련 업종(숙박, 요식업 등) 종사자 수도 많아져 경쟁이 치열한 편
	진출방안	정형화된 서비스가 아닌 특화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 필요가 있음
품목명 2		
공유경제를 활용한 서비스	선정사유	과거 대비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계층이 증가, 친환경/저실업률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시장동향	오피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경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체코 내 활성화 중
	경쟁동향	시장을 선점한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은 필수이며, 신규 서비스로 인해 체코법과 상충되는지 확인 *전동킥보드는 도로와 인도 사용여부를 가지고 논의 중
	진출방안	체코어(영어) 어플을 제공하면서 체코 시장에서 찾기 힘든 서비스로 접근 필요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한-체코 메디컬 플라자

○ 추진배경

- 체코의 의료부분(의료기기, 의료시스템)의 성장률 증가세 및 교체 수요 전망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모색
- 체코 의료 시장 규모는 2020년 1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EU 기금을 활용한 의료 통합 시스템 개선, 질병예방 프로그램 신설 등 의료 관련 프로젝트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사업 개요

- 시기/장소 : 2020년 5월 중/체코 프라하
- 주요대상 : 체코 진출 및 협력에 관심 있는 국내 의료기기/제약 관련 업체
- 주요 내용 : (오전)한-체 메디컬 포럼, (오후)한-체 메디컬 B2B 상담회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상원 선거	2020.10월 중	매 2년 주기, 총 81석 중 27석(1/3) 새로이 선출
지방의회선거	2020.10월 중	매 4년 주기, 13개 주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ET 확장 시행	2020.4월 또는 5월	의사, 변호사, 미용사 등 전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매출거래를 전자적으로 등록해 국세청에서 매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ET 제도 확장 시행
일부품목 부가가치세율 변경	2020.4월 또는 5월	EET 확장 시행에 맞춰 생맥주 판매, 미용 서비스, 자전거 수리 등 일부품목의 VAT가 기존의 21%에서 10%로 낮아질 예정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전기·전자	전기·전자, 자동화, 에너지, IT, 조명, 보안기술, 전기자동차 등	체코 브르노 전기·전자기술 전시회(AMPER)	2020.3.17 ~ 20/ 브르노
건축자재	건축, 목재,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 등	체코 브르노 건축 전시회 (Building Fair Brno)	2020.2.26 ~ 29/ 브르노
기계, 엔지니어링	공작기계, 산업로봇, 용접 및 주조 장비 등	체코 브르노 기계엔지니어링 전시회(MSV)	2020.10.5 ~ 19/ 브르노

I. 한-체코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체코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체코의 잠재력

- 서유럽과 동유럽, CIS 지역을 잇는 실질적 허브
 - * 유럽전역 잇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 자리, 2014~2020년 EU 펀드 교통OP 중 유럽전역을 연결하는 TEN-T(Trans-European Networks)구간에 약 13억 유로 할당
- 탄탄한 제조업 기반으로 유럽 자동차 시장 진출 거점
 - * 유럽 제5위 자동차 생산국(연간 140만대 생산), 승용차 생산 90% 유럽 시장 수출
 - * 총 850여 개 자동차 부품 업체 소재, 유럽 전역에 부품 공급
- 안정적인 거시경제, 발달된 인프라 및 우수 인력
 - * 2014~2017년 평균 3%대 경제성장률, 무디스 체코 안정적 부채 및 예산 보유 평가로 2019년 10월 체코 신용등급 A1 → Aa3로 상향조정(2002년 이후 최초)
 - * 유럽 제4위의 철도 수송규모 보유, 총 1만 5,578km 철도망, 5만 5,748km 도로망 구축
 - * 대학졸업자 중 기술, 생명과학, ICT 분야 교육 이수 비율 53%
- EU 성장 동력 및 한국의 유럽 투자거점 V4지역의 핵심 교역국
 - * EU 경제에서 V4 GDP 비중 상승(2000년 3.47% → 2017년 5.65%), 2017년 V4 평균 경제성장률은 4.1%로 EU 경제성장률 2.4% 상회
 - * 2018년 한국의 대(對)체코 교역량 역대최고 달성, 무역수지 2005년 이후 연속흑자 기록

주요국의 대(對)체코 경제관계 현황

- EU 안의 V4 중심국으로 유럽 및 주요국과의 다양한 경제 협력 구축

주요국의 대(對)체코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2004년 EU 가입 이후 EU 펀드 및 단일시장 진출로 상당한 경제성장 이룩 · 총 약 493억 유로 EU 펀드 배당, 대(對)EU 수출 체코 전체 수출의 85% 차지 · 유럽 국가의 투자유치 활성화, 체코중앙은행 기준 EU 국가 FDI 유입 전체 94% · 교통 분야 투입된 EU 펀드 약 122억 유로, 총 975km 철도와 총 495km 도로가 EU 지원으로 건설 및 현대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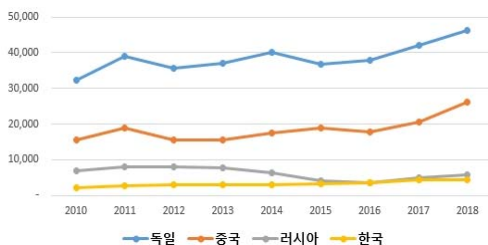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략 2012~2020년에서 수출 다각화(EU 의존도↓)를 위한 우선국가로 중국선정 · 중국 체코의 제2의 수입대상국, 전체 수입 중 14%(2018)차지 · 중국 CEFO 체코항공 지분 매입, 부동산 투자 등 약 10억 유로 투자 · 중국의 체코 직접투자는 전체 FDI에서 0.4%로 미미한 수준, 중국의 대(對)체코 투자는 부가가치창출 보다 부동산 소비부문 집중 투자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코 정부는 NATO가입 및 EU 가입 등으로 친서 친서구주의 유지, 그러나 제만 대통령이 친러시아 기조 유지하는 등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여전히 유효 · 체코의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의존도는 높은 편이며, 유럽과의 정치적 분쟁으로 여러 차례 원유 수송이 중단된 바 있음 · 체코의 기존 운영 원전이 모두 러시아 원전으로 체코 원전산업계가 러시아 기술에 친숙, 현재 러시아는 한국, 중국을 포함한 체코 신규원전 건설 참여 대상국임

2020년 한-체코 수교 30주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 1990년 수교 이래 짧은 기간에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2015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 * 2015년 2월 前소보트카 총리 방한 시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체코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음(중국과는 2016년 3월 수립)
- 현대자동차 및 벡센타이어의 유럽 생산 공장 등 50여 개의 한국 제조업 진출, 한국 체코 자동차 분야 투자 중심국으로 자리매김
 - * 현대자동차(13억 유로) 투자는 체코투자청 중개 프로젝트 중 최대, 벡센타이어(약 9억 유로) 투자는 3위
 - * 체코투자청 기준 한국은 독일, 네덜란드 이어 제3위 투자국
- 방산군수,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 주요 경제 분야 MOU 체결, 2019년 제4차 경제공동위 개최
 - * 2015년 12월 한-체 정상회담 방산, 인프라 등 18건 MOU 체결, 후속협력 지속
 - * 한-체코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경제협력협정 등 경제협정 체결 지속적으로 협력강화

한국-체코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체코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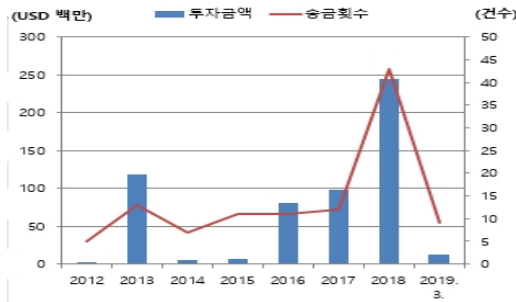
- 2018년 체코 3대 수입국(비중)은 독일(25.1%), 중국(14.1%), 폴란드(7.7%)임
- 2018년 체코의 주요국 수입액은 독일로부터 약 464억 불, 중국 261억 불, 러시아 59억 불, 한국 43억 불 규모
- 체코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017년 21%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18년은 0.9%로 상승폭 감소

2. 대(對)체코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제품
중국	전자기기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광학·의료기기	자동차 및 부품	완구
일본	전자기기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광학·의료기기	철강 제품

- (수출경합도) 대(對)체코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은 중국, 일본과 각각 3개 품목이 겹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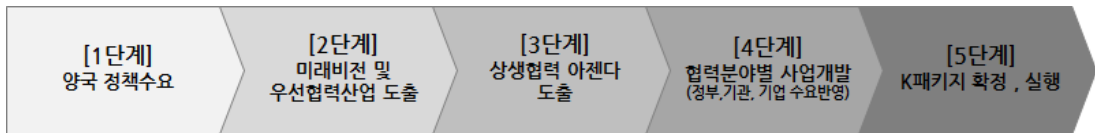
3. 대(對)체코 투자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기준 한국의 대(對)체코 투자 약 16억 달러, 91개사(지점포함) 진출
- 체코는 중동부 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제2대 투자 대상국
- 2006년 현대자동차 유럽공장 체코 진출을 계기로 자동차 분야 한국 협력업체 대거 진출, 제조업 투자 집중
- 투자 비중 제조업 89%, 도소매업 8%, 부동산업 1% 등

나. 한-체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보다 체계적이고,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분야 개발 필요



* 체코의 니즈와(수요측면) 한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상호 비전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체코는 제조업 기반 산업에서 벗어나 제2의 도약을 위한 「체코 혁신전략 2019~2030」 발표

체코의 협력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원전·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미래 트렌드로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차 R&D 확대 등 ◆ 신규원전사업 입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외 국가 참가 희망
ICT	교통 등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에 EU 자금 투입 ◆ ICT 등 첨단산업의 R&D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AI, 항공, industry 4.0 분야 등
R&D 협력	의료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의료장비 교체, 병원정보화시스템

Innovation Strategy of Czech Republic 2019~2030의 9가지 핵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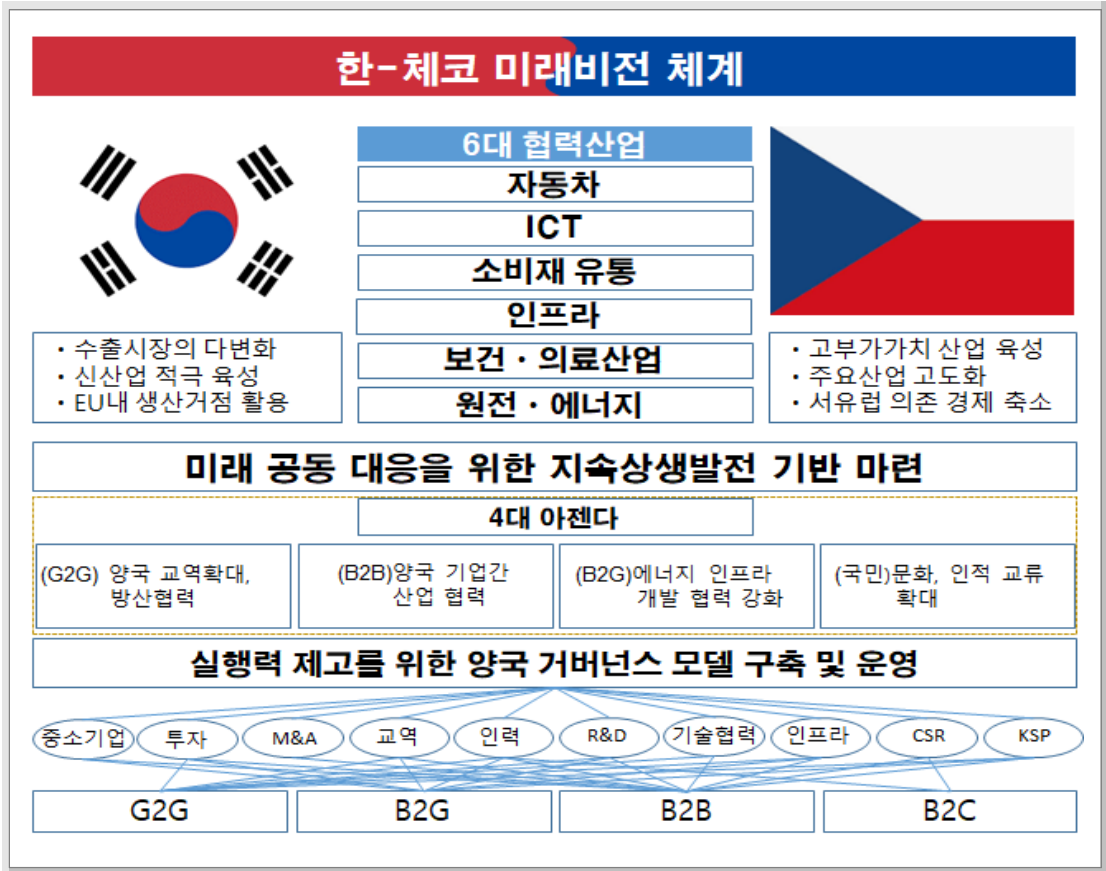
R&D 국가	R&D 비중을 현재 체코 GDP의 1.8%에서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
기술교육	초·중등 교육의 기술교육 과정 혁신 및 통합, 첨단기술에 초점을 맞춘 대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스타트업 국가	국가차원의 스타트업 지원 및 자금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적 스타트업 및 스피노프 (spin-off) 환경구축
디지털 국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도시 등의 Industry 4.0 구현 지원
혁신, 리서치센터 구축	인공지능, 우주기술, 레이저 기술, 나노기술 등 잠재력 있는 미래 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기반 지원
스마트국가	고부가가치 기업 투자, Industry 4.0 구현 및 미래 산업 투자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단계부터 제조 및 응용단계까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스마트인프라 국가	스마트 모빌리티 및 운송 텔레매틱스시스템 지원, 건설철차 간소화
스마트 마케팅	혁신 선도 및 창의적인 인재 국가 이미지 구축- 체코 연구센터의 우수성, 최첨단 기술, 성공적인 혁신 인물에 대한 마케팅

2020년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2018년 11월 정상회담 주요 의제 :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방안, △교역·투자 확대, △혁신 성장, △원전·에너지, △국방·방산, △인적교류·문화협력, △한반도 정세

체코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산업		구체적인 역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원전·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기술, 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 보유 -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선진국 설계인증 취득
ICT	교통 등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강국 - 세계최초 5G 상용화, 정보통신기술 보급분야 1위
R&D 협력	의료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기술과 접목된 선진 공공의료시스템 보유 -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높은 의료기술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교역 확대, 방산 협력

① 실질적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정책 수요)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에서 교역·투자 확대 관련 MOU 체결 및 의제 지속 논의

- ▶ 2015년 12월, (한)무역보험공사-(체)투자청, 체코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MOU, (한)KOTRA-(체)산업협회, 산업협력 협력 확대 MOU 체결
- ▶ 201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 2019년 5월 4차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 교역확대 합의

- (기업 수요) 우리기업의 대(對)체코 투자액 중 90%가 제조업 분야이며,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애로사항 해결 필요

* 한-체코 교역액(억 불) : (2014)24 → (2015)26 → (2016)28 → (2017)29 → (2018)33

* 한국의 대(對)체코 투자규모(2018년 기준) : 19억 불(누적), 87개사

- 체코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체코투자청의 투자 인센티브 미지급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어, 조속한 해결을 통해 체코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
- 2%의 낮은 실업률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현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 내 노무관리비 증가
- (협력 방안) 접수된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양국 간 의제로 선정, 체코 정부의 관심 유도
 - 체코 정부는 4차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미지급 인센티브 건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변
 - 진출기업과 지역 내 우수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와 보다 빠른 비자 발급을 통한 제3국 근로자 유입 필요

② 방산 협력

- 2018년 6월 체코 국방부는 2027년까지 기존 방산 장비 현대화 및 새 장비 구입을 위해 약 1,000억 코루나(약 5조 원) 상당의 예산 배정 발표
- 2018년 11월 양국 회담 시 한국 K-9 구매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 바 있어 방산 분야 협력 가능성 존재
- ‘한-체코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 시 양국 간 군사교류 및 방산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

-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코 정부는 높은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측과 협력 강화 희망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① 자동차 [전기자동차] 산업 협력

- 체코에 한국 자동차 유관기업 50여 개 진출, 유럽전역의 전기자동차 생산 및 수요 증가함에 따라 유럽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체코 내 부품공급 업체가 전기자동차 공급망 내 자리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
 - * 한국의 대(對)체코 제조업 투자 중 자동차관련 비중 96%(자동차 제조 59%, 자동차 부품제조 20%, 타이어 제조 17%)
 - * 현대자동차는 체코 전체 승용차 생산의 약 24% 차지
- 체코 중심산업인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증가,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 산업 육성 노력
 - 체코 자동차 생산 5년 연속 성장, 2018년도 최대 생산량(144만 대) 갱신
 -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체 매출 약 469억 달러(2018), 전년 대비 성장률 2017년 7%, 2018년 1% 기록
 - 수출지향적인 체코 경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수출의 약 20% 차지
 - * 체코 자동차 수출 : 약 227억 달러(2018), 2017년 14%, 2018년 7% 증가
 - * 체코 자동차 부품 수출 : 약 156억 달러(2018), 2017년 9%, 2018년 6% 증가
 - 체코투자청 자동차 산업 분야 자율주행, 차량 경량화 소재기술, R&D 센터 유치에 초점을 맞춰 지원활동
 - * BMW그룹 체코에 전기자동차, 디지털화, 자율주행 및 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 테스트 센터에 약 2억 5,000만 유로 투입해 건설할 예정
- 2020년 체코 전기자동차 생산 본격화 예상
 - 전기자동차 보조금부재 및 인프라 부족으로 서유럽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낮은 편(현재 약 3,000대 전기자동차 운행)이나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수 20만 대로 증가 예상
 - 스코다 자동차 2020년부터 전기차량 생산계획 및 첫 전기차 모델 생산판매 시작, 2022년까지 전기차 모델시리즈 10개로 확대 계획
- 전기자동차 부품 및 생산설비 분야 협력 방안
 - (기존 자동차 부품 진출기업의 시장 확장) 체코에 기반을 다진 진출기업의 경우 유럽고객사 확장, 현지조달 확대, 제품라인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어, 유럽 시장의 전기자동차 확대에 따른 전기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진출 기대

- (R&D 확장 투자) 최근 투자인센티브 개정으로 R&D 센터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진출 기업의 자동차 신기술 R&D 센터 및 신제품 개발 센터 확장 투자 기대
- (생산설비 및 자동화 진출) 전기자동차 전환으로 인한 생산설비 확대 및 자동화와 로봇화 도입으로 자동화시스템 수요 증가가 예상돼 관련 업체 진출 가능성 높아짐
- (R&D 및 기술협력 확대) 자율주행 센서 기술, 신호처리 기술, 지능형 카메라시스템 등 현지 업체와 기술협력 확대 가능성

2 의료산업 협력

- 노령화 및 소득증가로 의료지출 금액 매년 증가, 의료기기 현대화, 소도시 치과지원, 의료정보 시스템 추진 등 요인으로 **의료분야 시장 확대**
 - * 의료비 지출 규모(십억 달러) : 16.8(2017)→17.5(2018)→19.9(2019 전망)[자료 : BMI]
 - 체코 의료 관계자들은 한국의 의료분야의 혁신기술 및 디지털화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또한, 2019년 5월 한국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한국 의약품 수출 유리
 - *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 원료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현황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 EU 수출 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 면제
- 체코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수입규모 증가 추세
 - BMI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체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성장, 의료기기 수입도 최근 3년 증가추세로 2018년 전년 대비 17% 증가
 - 공공병원의 노후화된 설비교체 및 1차 진료소의 진단장비 부재 등의 요인으로 의료기기 현대화 투자 지속
 - * 체코정부 2016년 약3억 달러 병원 현대화 자금 배정, 2018년 의료보험 인상으로 약 1억 7,000만 달러 예산 확보해 의료장비 개선에 투자 예정
- 체코 의약품 시장은 고부가가치 의약품 수요 증가, 구매력 향상, 안정적 의약품 관리·감독환경으로 중동부 유럽에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
 - BMI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성장, 2023년까지 연평균성장률 7.7%로 지속성장 전망
 - 체코 의약품 시장의 90%가 처방의약품(Rx Product)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혁신 의약품 발굴 노력 중
- 의료분야 협력 방안
 - (MOU 후속 사업 지속) 2015년 한-체코 보건부의 보건산업협력 MOU 체결 후 양국의 메디컬 포럼, 상담회, B2B 미팅 등 유관기관 협력도모 및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후속 사업 지속
 - * 2019년 5월 한-체코 메디컬플라자 개최 : 양국 의료분야 정부인사, 관련기관 담당자, 바이어 등 총 100여 명 참여

- (검증된 파트너 발굴 통한 의료분야 공공조달 접근) 국공립병원의 경우 의료기기는 공공 조달을 통해 구매되며, 대규모 입찰 대부분은 현지 공급자를 통하기 때문에 현지 공급업체와 협력 필요
- (전시회 참여로 인지도 제고) 체코 및 유럽 메디컬 전시회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 기업 인지도 제고

③ ICT 산업 협력

○ 의료정보시스템, e-Government 등 ICT 프로젝트 추진 및 투자 증가 추세

* ICT 투자(십억 코루나) : 155(2014) → 192(2015) → 191(2016) → 200(2017)[자료 : 체코통계청]

-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한국의 ICT 기술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체코 측에서 한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 ICT 협력이 추진되기를 희망

○ E-Government 및 의료정보시스템 추진

- 체코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 행정망의 ICT 서비스를 향상하고, e-Government 서비스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TOP 5를 목표로 e-Government 전략을 도입함
- 의료, 사회복지, 공공조달 및 세금 분야 등 행정전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하고자 온라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진행함
- 주요 성공 사례는 각 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전달 및 수신할 수 있는 데이터 메일박스(Datová schránka) 시스템과 범죄기록, 부동산 기록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조회 및 발급 통합시스템인 CzechPoint가 있음
- e-Government의 일환으로 각 공공병원의 의료정보를 전자화해 검진기록 및 환자이력 등을 관리·공유할 수 있는 현대화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약 8,000만 달러 규모)

○ ICT 분야 협력 방안

-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참여) 의료정보시스템 프로젝트의 경우 체코어 지원 및 기존 병원 시스템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유리
- (협력유망 분야 비즈니스 기회 발굴) 지난 2016년에 개최된 한-체코 ICT 정책포럼에서 5G, 차세대통신망,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논의된 바 있어, 관련 분야의 비즈니스 가능성 주시 및 발굴 필요

다. [B2G] 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① 에너지 협력수요

- (정책 수요) 국가에너지계획(2015년 5월)에 따라 2040년까지 신규 원전을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각 1~2기 건설 계획 수립

- 국가에너지계획을 통해 자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 비중을 축소, 원전을 확대하는 전략 수립
- 신규 원전 사업비는 약 125~150억 불로 추정 중(2기 건설 기준)

국가에너지계획 2015~2040년 정책과제

전략적 정책과제	주요 내용
에너지믹스 다각화	▶ 에너지소비구조 및 전원 구성의 다각화 ▶ 국내 조달 가능한 에너지 위주로 에너지 소비구조 구축
에너지절약·효율개선	▶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 추진 ▶ EU 회원국 평균 수준의 에너지효율 달성
국제협력 강화	▶ 전력망 인프라 구축 ▶ 가스·전력시장 통합 추진
R&D 투자	▶ R&D 투자 지원을 통해 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

* 자료 :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외국 기업들의 참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의 체코 전력 부문 발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시장 현황) 2016년 잠재공급사*로부터 RFI 접수, 2019년 사업·투자 모델 결정, 2020년 말 공급자 선정을 목표로 함
 - * (한)한수원, (미)웨스팅하우스, (러)로사토크, (중)CGN, (프)EDF, (프-일)ATMEA
- 2017년 체코 총선 및 2018년 체코 대선 일정과 더불어 신정부 정부 구성 지연, 원전 투자 모델 논의 등으로 전체적인 일정은 지연된 상황임
- 바비쉬 총리는 정부가 70% 지분을 보유한 체코전력공사(CEZ)가 주도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CEZ의 민간 주주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음 이후 2019년 7월 양측은 자금 조달 부분에 합의
- 투자 재원은 CEZ의 자체 현금 보유액과 외부 조달을 통해 마련되며, 정부는 CEZ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양측의 협의안은 향후 내각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입찰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

2 인프라 협력수요

- (정책 수요) 2014~2020년 EU 투자기금 운용 프로그램 시행 중
 - 체코는 2014~2020년 EU 구조 투자기금(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으로 240억 유로를 배정받음

2014~2020년 EU 기금 배정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EU 기금	금액	비중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12,160	50.3
결속기금(CF)	6,260	25.9
유럽사회기금(ESF)	3,430	14.2
유럽농업기금(EAFRD)	2,300	9.5
유럽해양어업펀드(EMFF)	31	0.1
청년고용지원(YEI)	13.6	0.0
합계	24,194.6	100

* 자료 : EU 집행위원회

- 교통(47억 유로), 통합지역(46억 유로), 기업혁신(43억 유로), 환경(26억 유로), 프라하시(2억 유로 등) 프로젝트 등에 걸쳐 총 10개 OP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중
- (시장 현황) EU 기금 운용 프로그램 중 철도 및 도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47억 유로)
 - 체코는 유사 인구를 가진 타 EU 국가 대비 적은 수의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어, 고속도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

교통 운용 프로그램(Transport OP) 분야별 비중 현황

(단위 : %)

분야	비중
철도 및 기타 지속 가능한 운송 인프라	51.8
TEN-T 네트워크 도로 인프라, 친환경 차량 및 도로교통 관리를 위한 공공인프라	27.1
도로 인프라(TEN-T 네트워크 제외)	19.5
기술 지원	1.5

주 :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 유럽 지역을 지리적으로 연계하는 EU 교통망 프로젝트

자료 : 체코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CZ)

- 2017년 5월 체코 정부는 EU TEN-T 프로젝트 일환으로 체코와 인근 유럽 국가를 잇는 고속 철도 프로젝트를 승인

* 약 251억 4,600만 유로로 역대 최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임

3 에너지 협력 방안

- 한국 원전의 경제성, 안전성 등 높은 경쟁력에 대한 체코 재계 및 언론에 꾸준한 홍보 필요
 - 잠재공급사 중 가장 최근에 원전 수주 및 시공 경험이 있는 곳은 한국이며, 유럽 사업자요건 및 미국의 설계인증을 모두 획득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

- 한수원 체코 사무소를 통해 원전 건설 지역 내 한수원 및 원전 홍보
 - 한국 원전의 밤 행사를 통해 한국 원전 홍보(2017년 11월)
 - 원전 지역의 아이스하키팀 후원(2018년 9월)
 - 체코 글로벌 봉사단을 원전 건설 지역 내 파견하여 봉사활동 및 문화 교류 행사 진행(2019년 6월)
- 체코 현지 원자력계 오피리언 리더를 활용하여 한-체코 양국 간 원자력 산업 협력 증진 기여
- 체코 정부는 원전 수주 조건 중 하나가 체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하라고, 밝힌 바 있어 현지 업체와의 협력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

4 인프라 협력 방안

- 인프라 관련 한국 측 경험 및 노하우를 현지에 적극 홍보
 - 한국은 자체 고속철 개발 경험뿐만 아니라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운영, 공항 건설 및 운영 측면에서 높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 프로젝트 개발 단계부터 한국식 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노력 필요
- 역량 있는 로컬파트너 발굴 및 컨소시엄 구성 참가
 - EU 지역 소재 업체, 유럽 지역 프로젝트 레퍼런스 보유 유무, 현지어 입찰서류 작성제출 등의 장벽 극복이 관건
 - 특히 공공조달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지 않고, 외국기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업체와의 컨소시엄이 절대적으로 필요
 - ITS 프로젝트의 경우 체코 업체들의 경우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 단순 체코 시장뿐 아니라 인근 시장으로도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체코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진출도 시도해 볼 만 함
-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계획 제시를 통하여 사업추진 유도
 - 체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뚜렷한 사업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아 EU 기금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
 - 따라서 우리기업이 먼저 EU 기금의 각 운영 프로그램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계획 제시를 한다면, 사업 추진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

라. [국민] 문화, 인적 교류 확대

1 관광

- 최근 5년간(2013~2017년) 체코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체코 방문 한국인은 40배 이상으로 불균형인바,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많은 체코인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체코 정부의 관심 및 협조 필요

한-체코 관광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코 → 한국	11,903	11,796	9,886	10,510	10,922	10,759
한국 → 체코	155,853	195,086	265,330	325,612	415,555	416,243

* 자료 : 한국관광공사, UNWTO, 체코내무부

2 문화교류

-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기념, 문화교류 행사 개최
 - 기존 제조업 위주 협력에서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문화교류 행사 개최
 - 특히 체코는 인근 동유럽 국가 대비 한류(K-pop, 드라마 등)가 높지는 않으나, 최근 한국산 화장품 및 SNS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적극 활용
- 체코 내 한국문화원 개설 검토 필요
 - 현재는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식 행사, 한국영화주간 등을 주관하고 있으나, 매년 개최에 제약이 있어 문화원을 통해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이 필요
 - * 인근 동유럽(폴란드, 헝가리)는 한국문화원 개설 완료
 - 한국문화원 장소를 활용 시, 현재 운영 중인 한국어 수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Ⅲ. 향후 對체코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체코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격년으로 개최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협력 MOU 이행 현황, 애로사항 논의 및 해결
 - * 1차 공동위(2011년 11월, 서울), 2차 공동위(2015년 10월, 프라하), 3차 공동위(2017년 9월, 프라하), 4차 공동위(2019년 5월, 프라하)
- 격년으로 개최되는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협력 MOU 이행 현황, 애로사항 논의 및 해결

② 주요 산업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산업별 심층 협력 진행

- 지속적인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양국 간 대화 채널로 활용하며, 정책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 협력 논의
 - * 과거 과기공동회를 4차례 개최하였으나, 2015년 5월 이후 미개최
 - * 2015년 12월 한-체코 방산군수협력 공동위 개최, 2018년 양국 국방주요인사 면담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쏠 분야 참여 주체 수요 반영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은영	과장	프라하무역관	+420-245-005-656	ey.kim@kotra.or.kr
2	정지연	과장	프라하무역관	+420-245-005-653	jjj@kotra.cz

KOTRA자료 20-049

2020 국별 진출전략 체코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95-1(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